

「지스트, 총장 비위행위 제보에 감사 뭉개고 담당자 타부서 발령 논란」 보도 관련

(2025. 7. 3. / 세계일보 온라인 보도)



▲ GIST 행정동 전경

□ 보도 내용

- 올해 4월, GIST의 한 교수가 총장에 관한 의혹을 감사부에 이메일로 제보했음. 이에 대해 감사부장이 제대로 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6월 1일자로 돌연 타 부서로 인사 이동되면서 내부적으로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또 다른 교수는 해당 강사가 총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인한 고충을 주변에 토로해 왔다고 주장함. 한편, 해당 강사는 2년 계약 만료 후 고용 단절 없는 재계약이 예정돼 있음.

□ 관련 사실

① 감사 절차 및 인사 이동

-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부는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5월 중 내부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사자인 강사가 “이 일이 더 이상 언급되거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내사 수준에서 종결 처리됨. 감사부에 이메일을 보낸 교수에게는 6월 5일, 전화 통화를 통해 구두로 결과를 안내함.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내사 진행 사실은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총장은 6월 이후 해당 사안을 인지함.

- 감사부장의 6월 1일자 인사 이동은 본 사안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맥락에서 결정된 것임. 하반기 중 예정된 외부감사 대응과, RISE 및 글로벌대학30 등 대형 사업의 수행을 위한 창업진흥센터장 공석 해소 등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라 ▲미래전략실장 → 감사부장 ▲감사부장 → 대학지원실장 ▲대학지원실장 → 창업진흥센터장으로 이어지는 소폭의 보직 순환이 이루어진 것임.

② 발언 및 경위

- 총장은 4월 17일(목)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학습 의무화'를 주제로 언어교육원 원장 및 강사진과 회의를 갖고, 같은 날 저녁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음. 이 자리에서 해당 강사가 국제관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국제관 거주자인 총장은 "같은 (국제관) 주민이시군요. 마침 대외부총장도 국제관에 살고 있으니 셋이 언제 와인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와 같이 말함. 이에 대해 당시 동석한 일행 중 한 명은 "전혀 불편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확인함. 오는 8월 예정된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 2025) 참석을 앞두고 영어 회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총장은 이날 해당 강사에게 "영어 학습법을 여쭙 보러 조만간 연락 드리겠다"고 밝혔음.
- 총장은 4월 17일(목) 회의 및 식사 자리에서 해당 강사가 언어교육원의 외국인 강사들 중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유일한 강사임을 듣고, 일반적인 영어 강사와는 다른 교수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이에 영어 학습 요령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서실장(미래전략실 팀장)에게 강사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커피 한 잔 하며 영어 학습의 '비법'을 들을 수 있을지" 강사에게 정중히 요청함. 이후 총장과 강사는 강사의 일정에 맞춰 4월 27일(일) 오후 4시경 국제관 앞에서 만나, 강사가 추천한 GIST 인근 카페로 걸어서 이동해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돌아옴. 이날 대화의 주제는 크게 ▲영어 말하기 학습 요령 ▲언어교육원 외국인 강사 처우 개선 문제였음.
- 총장이 해당 강사에게 만남을 종용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

③ 재계약

- 해당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동료 강사 및 언어교육원장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재계약이 예정된 상태임.

□ GIST 입장

- 우리 대학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외부에 제보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 특히, 우리 대학은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상세한 답변을 성실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자극적인 표현과 부정확한 서술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